

광주전투기 훈련시간·횟수·이착륙 방향 조정되나

“군공항 이전 대상지 결정되도 완공까지 많은 시간 걸려”
오늘 광주시-제1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저감 업무협약’
군공항 이전 3단계 방안 중 하나...소음 피해 보상도 곧

광주시가 공군과 처음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식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청 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더라도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내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8일 오전 11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군공항 소음 피해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시장은 “업무협약에는 훈련 시간과 횟수, 이착륙 방향 등을 협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군공항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방문과 대

책논의를 했지만, 업무협약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3단계 대책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시민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공항 조기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용역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주 전남도청에서 열린 비상위원회에서 국방부, 국토부와 4자간 협의회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용역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발표한바 있다.

이 시장은 또 군공항 이전 3단계 중 하나의 방안으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군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출격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군공항을 옮기기 전까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소음 피해가 입증되면 주민 1인당 매달 3만~6만 원씩 1인당 지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피해 측정을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면서 “시청 직원들이 적극 뒷받침해서 광주 지역 피해가구나 피해단지가 누락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 시장은 “시민권 의원위원회의 광주민간공항 이전 시기 관련 답변은 9일이나 10일쯤 발표할 것이다”고 재확인했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 2단계에 AI까지...김영록 전남지사 방역 협조 호소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도 8일 0시를 기해 오는 28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관련기사 9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전남 전역을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사회

오늘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AI 차단방역·사육농가 출입삼가 요청

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제3차 대유행에 접어든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13개 시·군에서 251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29일 이후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단계 강화에 따라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시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김 지사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해를 입은 업종과 어려운 계층이 지원을 받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영암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과 관련해 차단 방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 3년여 만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도민들에게는 닭·오리 사육농가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모든 농가에서도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정환기자

전남대병원, 응급실 정상 가동 병원장 사과·코로나19 캠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3주 만에 응급실까지 정상 가동한 전남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벌이며 지역민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전남대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했던 응급실이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안영근 신임 병원장과 보직자들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문구가 새겨진 손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또 안 원장과 보직자들은 진료 대기실을 찾아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환자화 지역민에 유감을 표명한 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안 병원장은 “지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며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